

부모와 형제자매의 사별관리

Ida Martinson, RN, PhD, FAAN

Professor, School of Nursing,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in San Francisco)

토인비가 1968년에 쓴 글에 의하면 죽음에는 언제나 죽는 사람과 남아서 애도하는 두 대상이 있다. 사별(grief)이란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별한 상태를 말한다.

사별의 경험은 다음의 현상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상실에 대한 반응인 슬픔(grief)
2. 빼앗김(deprivation)으로 인한 외로움
3. 어떤 종류의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오명으로 인한 수치감

슬픔은 상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슬픔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 슬픔, 분노, 죄책감, 자기반성 같은 감정이나 느낌
2.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듯하거나 또는 속이 빈듯한 신체적 감각
3. 믿지 못하거나 혼돈, 한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인지증상
4. 수면, 식욕의 변화, 사회적 위축, 한숨을 쉬거나 안절부절, 과다행동 등

애도(mourning)란 죽음과 슬픔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애도는 grieving이나 grief work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말기 환아의 가정간호를 통한 2년간 횡단적 추후관리 연구

어린이 사망 후에 장기간에 걸친 가족의 반응을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질적연구로 49가족을 암환아의 사망 후에 면접했다. 면접내용은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많은 부모와 형제자매 들이 어린이의 사망 7~9년 후에도 여전히 고통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의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원들에게 텅 빈듯한 느낌(empty space)을 갖게 하였다. 가족들은 이러한 텅 빈듯한 느낌에 대해 세가지 형태의 애도(grieving)과정을 표현하였으며 이들은 “슬픔을 극복함”, “공허함을 채움”, “죽은 아동을 계속 생각하거나 추모함”이었다.

2. 청소년의 애도

암환아의 가정간호의 횡적연구에 참여한 21가족의 형제자매와 사별한지 7~9년이 지난 3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준 구조화된 면접에 의한 항목별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애도 경험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이 성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6명중 1명은 형제자매의 죽음은 아직도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긍정적인 반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들간의 좋은 의사소통”, “어린이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음”,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표현함”, 그리고 “가족원들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음”이었다.

부정적인 반응과 관련된 요인들은 “가족들간의 위축된 상호관계”, “가족들을 지지원으로 기대할 수 없거나 아동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논의하기 어려움”이었다.

3. 어린이의 애도

형제자매가 암으로 사망했을 때 7~9세였던 어린이들을 7~8년 후에 면접하였다. 해석학적 연구방법과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지식, 죽음에 대한 인식, 형제자매의 죽음이 그들에게 준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들은 그들이 질병,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졌었기를 원하였다. 대부분이 자신의 형제자매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정보도 없이 구경하는 입장이었음을 토로했다. 그들에게 형제자매의 죽음은 또한 친구(동료)의 죽음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상실을 의미하기도 했다. 7~8년이 지난 후에도 거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죽은 형제자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 나가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서는 형제자매의 죽음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